

# 통일선보

무소속대변지

제 25호 [루계 제 2755호]

주체 112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음력 4월 29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도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인민의 대동강은 노래한다

유서도 깊고 자랑도 많은 아름다운 평양에는 푸른 비단을 필필히 늘어놓은 듯 도시를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는 어머니강 대동강이 있다.

예로부터 대동강구역은 세계5대문화의 하나인 대동강문화가 창조된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의 종류와 하루류의 은 맑은 강줄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가 있고 물산이 풍부하며 기온이 따뜻함으로 하여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되어왔다.

하기에 평양은 민족의 원시조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수도였고 천년강국 고구려의 수도였다.

이렇듯 평양의 력사가 깊어 수천년, 바로 그 기나긴 세월 속에는 언제나 맑고맑은 대동강의 용용한 흐름이 있었으니 언제부터였던가.

가는 세월과 함께 무심히 흐르던 이 강이 근로하는 인민을 위하여, 그들의 웃음과 랄만, 사랑과 행복을 더해 주며 은구슬, 옥구슬이 되며 흐르기 시작한 그날은...

하루하루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다.

이윽고 이께서는는 다름나라에서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마련하여주는 원칙에서 물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목욕탕과 수영장, 물놀이장에는 1%의 목욕은 물도 있어서 안된다고, 100% 보급 100% 넣는 원칙에서 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지도를 펼쳐놓으시고 붉은색연필로 목욕탕과 대동강을 꼭 연결시키시며 대동강물을 끌어올리자고, 사람이 원하는대로 물을 흐르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로동당시대가 아닌가고 교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창광원의 수원 은 억년 마를 줄 모르는 대동강의 흐름과 하나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이른날 평양행원과 함께 은 나라에 소문난 옥류관을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새로 증축하도록 하여주시고 통과도를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건설시기에 위대한 큰사업은 기술이신분도, 옥류교와 가까운 곳에서 약수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로는 참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대동강의 아름다운 이름을 달아 물소 《옥류약수》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분도,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는 창건지리건설을 물소 발기하고 그거가 대동강반에 솟아오른 또 하나의 인민의 보급지리로 건설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분도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새로 일떠서는 주체사상당을 배경으로 대동강 한복판에 큰 분수를 설치할때 대한 발기를 하시고도 이제 건설될 대동강의 주변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해당 부분에 대동강물의 수질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할때 대한 과업을 주신 다심한 그 은정,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는 여러 차례의 과학적인 실험과 치밀한 연구분석끝에 대동강물의 수질이 매우 깨끗하며 분수를 좌우리면 주위의 풍기를 더 맑고 신선하게 해준다는것, 그런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기본도 상쾌하게 할

배려하여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다.

이윽고 이께서는는 다름나라에서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마련하여주는 원칙에서 물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목욕탕과 수영장, 물놀이장에는 1%의 목욕은 물도 있어서 안된다고, 100% 보급 100% 넣는 원칙에서 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지도를 펼쳐놓으시고 붉은색연필로 목욕탕과 대동강을 꼭 연결시키시며 대동강물을 끌어올리자고, 사람이 원하는대로 물을 흐르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로동당시대가 아닌가고 교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창광원의 수원 은 억년 마를 줄 모르는 대동강의 흐름과 하나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이른날 평양행원과 함께 은 나라에 소문난 옥류관을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새로 증축하도록 하여주시고 통과도를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건설시기에 위대한 큰사업은 기술이신분도, 옥류교와 가까운 곳에서 약수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로는 참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대동강의 아름다운 이름을 달아 물소 《옥류약수》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분도,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는 창건지리건설을 물소 발기하고 그거가 대동강반에 솟아오른 또 하나의 인민의 보급지리로 건설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분도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새로 일떠서는 주체사상당을 배경으로 대동강 한복판에 큰 분수를 설치할때 대한 발기를 하시고도 이제 건설될 대동강의 주변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해당 부분에 대동강물의 수질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할때 대한 과업을 주신 다심한 그 은정,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는 여러 차례의 과학적인 실험과 치밀한 연구분석끝에 대동강물의 수질이 매우 깨끗하며 분수를 좌우리면 주위의 풍기를 더 맑고 신선하게 해준다는것, 그런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기본도 상쾌하게 할

배려하여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다.

이윽고 이께서는는 다름나라에서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마련하여주는 원칙에서 물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목욕탕과 수영장, 물놀이장에는 1%의 목욕은 물도 있어서 안된다고, 100% 보급 100% 넣는 원칙에서 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지도를 펼쳐놓으시고 붉은색연필로 목욕탕과 대동강을 꼭 연결시키시며 대동강물을 끌어올리자고, 사람이 원하는대로 물을 흐르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로동당시대가 아닌가고 교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창광원의 수원 은 억년 마를 줄 모르는 대동강의 흐름과 하나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이른날 평양행원과 함께 은 나라에 소문난 옥류관을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새로 증축하도록 하여주시고 통과도를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건설시기에 위대한 큰사업은 기술이신분도, 옥류교와 가까운 곳에서 약수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로는 참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대동강의 아름다운 이름을 달아 물소 《옥류약수》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분도,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는 창건지리건설을 물소 발기하고 그거가 대동강반에 솟아오른 또 하나의 인민의 보급지리로 건설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분도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새로 일떠서는 주체사상당을 배경으로 대동강 한복판에 큰 분수를 설치할때 대한 발기를 하시고도 이제 건설될 대동강의 주변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해당 부분에 대동강물의 수질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할때 대한 과업을 주신 다심한 그 은정,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는 여러 차례의 과학적인 실험과 치밀한 연구분석끝에 대동강물의 수질이 매우 깨끗하며 분수를 좌우리면 주위의 풍기를 더 맑고 신선하게 해준다는것, 그런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기본도 상쾌하게 할

배려하여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다.

이윽고 이께서는는 다름나라에서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마련하여주는 원칙에서 물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목욕탕과 수영장, 물놀이장에는 1%의 목욕은 물도 있어서 안된다고, 100% 보급 100% 넣는 원칙에서 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지도를 펼쳐놓으시고 붉은색연필로 목욕탕과 대동강을 꼭 연결시키시며 대동강물을 끌어올리자고, 사람이 원하는대로 물을 흐르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로동당시대가 아닌가고 교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창광원의 수원 은 억년 마를 줄 모르는 대동강의 흐름과 하나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이른날 평양행원과 함께 은 나라에 소문난 옥류관을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새로 증축하도록 하여주시고 통과도를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건설시기에 위대한 큰사업은 기술이신분도, 옥류교와 가까운 곳에서 약수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로는 참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대동강의 아름다운 이름을 달아 물소 《옥류약수》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분도,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는 창건지리건설을 물소 발기하고 그거가 대동강반에 솟아오른 또 하나의 인민의 보급지리로 건설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분도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새로 일떠서는 주체사상당을 배경으로 대동강 한복판에 큰 분수를 설치할때 대한 발기를 하시고도 이제 건설될 대동강의 주변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해당 부분에 대동강물의 수질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할때 대한 과업을 주신 다심한 그 은정,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는 여러 차례의 과학적인 실험과 치밀한 연구분석끝에 대동강물의 수질이 매우 깨끗하며 분수를 좌우리면 주위의 풍기를 더 맑고 신선하게 해준다는것, 그런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기본도 상쾌하게 할

배려하여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다.

이윽고 이께서는는 다름나라에서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마련하여주는 원칙에서 물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목욕탕과 수영장, 물놀이장에는 1%의 목욕은 물도 있어서 안된다고, 100% 보급 100% 넣는 원칙에서 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지도를 펼쳐놓으시고 붉은색연필로 목욕탕과 대동강을 꼭 연결시키시며 대동강물을 끌어올리자고, 사람이 원하는대로 물을 흐르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로동당시대가 아닌가고 교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창광원의 수원 은 억년 마를 줄 모르는 대동강의 흐름과 하나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이른날 평양행원과 함께 은 나라에 소문난 옥류관을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새로 증축하도록 하여주시고 통과도를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건설시기에 위대한 큰사업은 기술이신분도, 옥류교와 가까운 곳에서 약수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로는 참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대동강의 아름다운 이름을 달아 물소 《옥류약수》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분도,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는 창건지리건설을 물소 발기하고 그거가 대동강반에 솟아오른 또 하나의 인민의 보급지리로 건설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분도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새로 일떠서는 주체사상당을 배경으로 대동강 한복판에 큰 분수를 설치할때 대한 발기를 하시고도 이제 건설될 대동강의 주변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해당 부분에 대동강물의 수질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할때 대한 과업을 주신 다심한 그 은정,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는 여러 차례의 과학적인 실험과 치밀한 연구분석끝에 대동강물의 수질이 매우 깨끗하며 분수를 좌우리면 주위의 풍기를 더 맑고 신선하게 해준다는것, 그런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기본도 상쾌하게 할

배려하여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다.

이윽고 이께서는는 다름나라에서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마련하여주는 원칙에서 물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목욕탕과 수영장, 물놀이장에는 1%의 목욕은 물도 있어서 안된다고, 100% 보급 100% 넣는 원칙에서 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지도를 펼쳐놓으시고 붉은색연필로 목욕탕과 대동강을 꼭 연결시키시며 대동강물을 끌어올리자고, 사람이 원하는대로 물을 흐르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로동당시대가 아닌가고 교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창광원의 수원 은 억년 마를 줄 모르는 대동강의 흐름과 하나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이른날 평양행원과 함께 은 나라에 소문난 옥류관을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새로 증축하도록 하여주시고 통과도를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건설시기에 위대한 큰사업은 기술이신분도, 옥류교와 가까운 곳에서 약수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로는 참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대동강의 아름다운 이름을 달아 물소 《옥류약수》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분도,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는 창건지리건설을 물소 발기하고 그거가 대동강반에 솟아오른 또 하나의 인민의 보급지리로 건설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분도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새로 일떠서는 주체사상당을 배경으로 대동강 한복판에 큰 분수를 설치할때 대한 발기를 하시고도 이제 건설될 대동강의 주변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해당 부분에 대동강물의 수질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할때 대한 과업을 주신 다심한 그 은정,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는 여러 차례의 과학적인 실험과 치밀한 연구분석끝에 대동강물의 수질이 매우 깨끗하며 분수를 좌우리면 주위의 풍기를 더 맑고 신선하게 해준다는것, 그런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기본도 상쾌하게 할

배려하여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다.

이윽고 이께서는는 다름나라에서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마련하여주는 원칙에서 물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목욕탕과 수영장, 물놀이장에는 1%의 목욕은 물도 있어서 안된다고, 100% 보급 100% 넣는 원칙에서 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지도를 펼쳐놓으시고 붉은색연필로 목욕탕과 대동강을 꼭 연결시키시며 대동강물을 끌어올리자고, 사람이 원하는대로 물을 흐르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로동당시대가 아닌가고 교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창광원의 수원 은 억년 마를 줄 모르는 대동강의 흐름과 하나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이른날 평양행원과 함께 은 나라에 소문난 옥류관을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새로 증축하도록 하여주시고 통과도를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건설시기에 위대한 큰사업은 기술이신분도, 옥류교와 가까운 곳에서 약수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로는 참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대동강의 아름다운 이름을 달아 물소 《옥류약수》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분도,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는 창건지리건설을 물소 발기하고 그거가 대동강반에 솟아오른 또 하나의 인민의 보급지리로 건설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분도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새로 일떠서는 주체사상당을 배경으로 대동강 한복판에 큰 분수를 설치할때 대한 발기를 하시고도 이제 건설될 대동강의 주변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해당 부분에 대동강물의 수질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할때 대한 과업을 주신 다심한 그 은정,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는 여러 차례의 과학적인 실험과 치밀한 연구분석끝에 대동강물의 수질이 매우 깨끗하며 분수를 좌우리면 주위의 풍기를 더 맑고 신선하게 해준다는것, 그런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기본도 상쾌하게 할



본사기자 김강철